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교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말씀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자

###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6학기 성경대학 이번 주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주최하는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6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이번 학기 세미나의 주제는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인 이종윤 목사는 “철학자 플라톤은 ‘타인

을 섬기면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다. 헬라인들은 섬기는 것은 존경 받는 길도, 추구할 것도 못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

다. 주님의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사명이 있다’면서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도 경향각지에서 모여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새 시대에 걸맞는 목회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 이종윤 목사가 텍스트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 콘텍스트로 분야별 섬김사역을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미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

적인 봉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 교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개설한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 강좌도 이번 주 일제히 개강한다. 평일을 이용하여 친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된 서울성경대학은 친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지도자 양성반이 신설되기도 했다. 제 6학기 성경대학의 강좌 및 시간, 강좌, 개강일은 위의 <표>와 같다.

####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6학기 프로그램

| 실시일     | 제 1 교시<br>14:00 - 15:30     | 제 2 교시<br>15:50 - 17:20              |
|---------|-----------------------------|--------------------------------------|
| 9. 6.   | 사도행전 연구<br>이종윤 목사<br>(서울교회) | 21세기와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br>김광식(연세대)        |
| 9. 13.  |                             | 노인 문제와 교회 역할<br>맹용길(장신대)             |
| 9. 20.  |                             |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br>정소영(서울신대)        |
| 9. 27.  |                             |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br>이원희(연세대)           |
| 10. 4.  |                             |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br>이정찬(한국교정선교회) |
| 10. 11. |                             |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br>최일도(다일공동체)     |
| 10. 18. |                             |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서의 상관관계<br>이원규(감신대)   |
| 10. 25. |                             | 복지관 운영과 교회<br>손은경(수서소방선교관)           |
| 11. 1.  |                             |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br>김재신(요셉의 집)        |
| 11. 8.  |                             |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br>홍성현(수송교회)  |

####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 강좌            | 요일·시간     | 강사     | 개강일    |
|---------------|-----------|--------|--------|
| 갈라디아서         | 월요일 오후 8시 | 정윤돈 목사 | 9월 6일  |
| 사무예상          | 화요일 오전 6시 | 이성득 목사 | 9월 7일  |
| 스바냐           | 화요일 오후 8시 | 치혜영전도사 | 9월 7일  |
| 느헤미야          | 목요일 오전 6시 | 이종윤 목사 | 9월 9일  |
| 음악교실          | 목요일 오후 8시 | 허희철 집사 | 9월 9일  |
| 리더양성반(L.T.C.) | 금요일 오후 7시 | 안진선 선생 | 9월 10일 |
|               |           | 고경선 목사 |        |

### “추석 연휴에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전도합시다”

추석 연휴 기간 친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데이프로급소에서는 추석 연휴에 앞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전도용 설교 테이프를 무

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예년의 경험으로 이미 자원하여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명단(테이프 수) = 전수자(50) 정동호(100) 박철훈

(50) 최학인(50) 김현정(30) 신동기(50) 신진성(30) 강민희(30) 오광환(30) 오영숙(30) 조철기(100) 김인숙(50) 왕경래(50) 오정수(50) 우지원(50) 이윤진(10) 전광영(50) 임희춘(20) 유

명석(10) 최일춘(10) 최재춘(10) 광숙(20) 전용순(50) 정현숙(30) 주경자(30) 이영주(10) 주화인(10) 최근자(10) 성준경(50) 권순단(10) 오승민(40) 윤운식(5) 함은희(5) 이복규(50)

이사야 강해

심판과 공황

이사야 27장 1-6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꺾박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스러운 포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하나님은 사탄을 죽이시되 여호와와 칼로 무찌르신다고 했습니다. 그 칼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은 한 마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이란 빨리 흐르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말하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구부러진 곳이 많은 유브라데스강 유역의 바벨론을 말하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앗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은 대적한 백성들로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또한 살아남을 힘도 없습니다.

리워야단은 '뚫뚫 감긴 것' 이란 뜻으로 용이나 악어, 고래와 같은 큰 괴물을 말합니다 (욥 26:13).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은 숲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척을 공격하는데 숨어있을 때 꼬불꼬불한 형태로 움추려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시 91:13, 사 51:9, 계 12:7, 9).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흉악한 것들입니다.

날랜다는 것은 공격적인 것을 의미하며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앞드려 도사리고 있는 체계가 많은 간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용이란 깊이 숨어서 찾아내기 어려운 것, 다시 말하면 광명의 사자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뒤에 숨어야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의하면 붉은 용은 교회를 삼키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이 나타나 그것들을 멸하실 것입니다(신

32:41).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정복이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2.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공황을 노래한다

포도나무가 귀한 이유는 포도를 맺기 때

의 낮에도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3. 하나님은 교회와 화평하시기를 원하신다

포도원이 주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하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이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쥘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중운 목사

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썩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천한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삿9:13). 그러므로 포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에게 사랑의 짐 외에 그 어떤 짐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포도원의 주변에는 도적이 많고 짐승들이 울타리를 헐기 때문에 포도원에는 감시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했습니다(요 15:1).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안팎에는 교회의 세력을 허는 사탄들이 있습니다(아2:1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땅대를 세워 포도원을 지킬 수도 있지만 파수꾼도 조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물을 때때로 주시며 또 밤낮으로 간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꺾박의 밤에도, 평안과 형통

여 노하시거나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포도원에서 원수된 쥘레와 가시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이 주인을 대적하면 그것을 밟고 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시기 보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므로 멸망을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평화는 주인의 뜻을 실천할 때 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이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의 후손들에게는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뿌리 박음', '움에 돋음', '꽃이 피', '결실함', '지면에 채움' 등의 번영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후대에 이와 같은 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다시 돌아온 마음의 고향 집 서울교회는... ●

##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복규 (집사, 성내둔촌다락방)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한 도시로 저희 가정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웃을 많이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 다시 주님은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서울로 되돌아와 몸되신 서울교회를 섬기도록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잘 것 없는 저희 가정으로 다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서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웠던 온 교회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신 감사와 기쁨은 더욱 크고 넘쳤습니다.

제게 서울교회는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와 오직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강한 메시지는 제게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2년 여 동안 말씀의 빈곤과 결핍, 사단의 유혹을 겪고 비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만나면서도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울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써 자랑과 긍지를

갖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곳입니다. 너그러운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정감어린 교우들의 사랑의 손길에서 어릴 적 느꼈던 아버지 같고 만형 같은 믿음직하고 존경스러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강한 기도의 무릎을 무기삼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로부터 따뜻하고 진한 어머니상을 느낍니다. "아빠!" "선생님!" 하고 품에 안기는 사랑부 학생들과 수고물(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서 작은 천국을 맛봅니다. 당신도 불편한 몸이심에도 저희 가정을 위해 하루도 걸르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사 다니느라 된장도 없을 거라고 집의 것을 퍼다 주시는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으로부터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회의 향수를 절감합니다.

서울교회는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천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또 이 모양저 모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와 김치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선교의 횃불을 새롭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전2020운동을 통해서 차세대를 향도할 젊은 일꾼들에게 복음을 심고, 탈북난민보호 서명 운동을 통해 우리 동포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애국심으로 남북 통일의 길을 열게 하심을 지극히 감사합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 비전, 교구와 교육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활기찬 역할, 믿음으로 넘쳐나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 유치부 교시수련회를 마치고 ●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유치부 교시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7일,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1박 2일 간의 수련회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할 때엔 비가 쏟아졌으나 곧 쾌청한 날씨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도착 예배를 드린 후 신미숙 전도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5-9절 말씀을 통해 교사들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과 더불어 많은 기도제목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매주일 함께 봉사하면서도 서로 손잡고 기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교사들이 짝기도와 기회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도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양식으로 식사를 한 후 등산, 수영, 발야구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평가시간을 가지면서 8개월 동안의 유치부를 돌아보며 고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과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유치부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일들을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좀더 충성된 교사가 될 것을 주님 앞에 다짐도 하고 서로를 격려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들,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영식(집사, 유치부 교사)



■...우리 교회당에서 가장 높은 곳, 따가운 햇살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살짝 고온생리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 건물 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웬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곳. 이쯤하면 우리는 쉽게 옥탑층에 위치한 교회 식당을 떠올린다. 무더웠던 8월 한 달 동안에도 이 식당은 늘 성도들로 붐볐다.

■...이 곳은 또 살짝 견허친 천막을 통해 푸른 하늘도 보고, 옆자리 성도님들과 가벼운 환담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몇 안되는 포근한 장소이기도 하다. 더욱이 감사할 일이 있는 성도들의 '한턱' 의 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따뜻한 정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서는 곳

도 이곳이다.

■...교회 식당은 주일 1부예배 후부터 3부예배 전까지 문을 연다. 물론 식사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간 중 여름철엔 평소보다 다소 적은 대략 650-700명의 성도님들이 식당을 방문한다. 2부 예배를 마친 후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든다. 바쁘고 분주하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로 가득찬 식당 내부와 줄을 서서 그릇을 하나씩 집어드는 또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묘한 평화로움을 가끔 느끼게도 된다.

■...일전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고 발표했다. 작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11,618 t으로 전년의 13,063 t에 비해 11%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양은 8t

트럭 1,450대가 넘는 정도며 서울만 해도 작년말 기준 하루 2,990t에 달하고 있다. 전체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채소류가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고 육류 및 어패류가 18%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 교회도 쓰레기는 매주 엄청난 양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다. 우리 교회도 전보다 쓰레기양이 줄기는 했지만 각 부서에서 간식을 먹은 후 버리는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처리하기엔 만만치 않은 양이다. 이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교회 식당에서 간혹 입맛이 맞지 않다고 음식을 그냥 버리는 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다.

●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4 ●

# 네가 낫고자 하느냐

편집부

8월 첫 주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연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왔다.

나라 사랑...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조만식이며 누가 유관순이며 누가 이 도시를 구할 의인 10사람에 속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숨을 멎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긴 침묵 속에 주님은 말씀하셨다.

"바로 네가 조만식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참으로 기막힌 명령 앞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진지하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노라. 네가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고.

\* \* \*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몇 가지의 설문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청년,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약 백 여 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가 병들어있는가? 병든 곳도 모르고 그저 고쳐달라고 한다는 건 난센스가 아니겠는가? 아니 병든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잡아떼면 의사는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몇 가지 유의했던 설문들을 나열해본다.

- 복음 증거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애쓰며 몇 사람의 이름을 정해놓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딤후 4:2, 요 1:40-42, 행 4:18-20)

- 주위의 많은 성도와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돕고 기도하며 그들의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렘 2:2-4, 빌 4:13-14)

- 먹고 마시는 일, 성생활, 감정 표현 등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롬 6:12-

14, 갈 5:22-23, 벧후 1:5-7)

- 이 나라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니까? (롬 9:1-3, 출 32:32)

- 이웃과 교인들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잔칫집보다 초상집을 찾기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약 3:14-16, 잠 14:30, 전 7:2)

- 주신 몸과 영혼을 혹사시키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고 인식시켜 늘 준비된 몸과 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창 2:2-3, 시 4:8, 롬 12:1)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자가 진단을 해주었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 이 대목에서 우리의 건강한 부위만 드러내놓고 자랑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풍성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듣는 귀는 고음이 되었고 많은 행사로 손과 발은 잘 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슴을 예전보다 미지근해졌고 지체 이기주의로 인한 지체간의 불균형이 시기와 효율을 저해하고 있으며 복음 증거의 열의가 식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영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함도 깨달았다. 아울러 내일을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제는 겸손히 의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환부를 내어 놓고 그의 치유하심을 기다릴 때다.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눈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분에게 첫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자. 나를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균형 잡힌 교인으로 회복됨을 받아다가오는 새 천년에 새 예배당에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곧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 \*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7-11)

###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이번 학기에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신 신대원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 \* 이호성 성도(4교구 서초다락방 김인숙 권사 아들)는 9일(목) 입대한다.
- \* 권장환 집사(10교구 둔촌성내 다락방)는 천호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함송현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대학부는 6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성경대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우리 생활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30분) |

### † 교외약도

